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1

#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 삶은 예술이다 삶도 길고, 예술도 길다



석당미술관은 동아대 설립자 석당 정재한 박사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다. 등록문화재 제41호 석당박물관 뒤편에 위치한 석당미술관은 부산시 6번째 등록미술관으로 근대와 현대적 건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현대미술과 전통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부산근현대미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3 VOL. 121



04.12.32

## ESSAY

- 04 경계를 허물고 지혜를 얻다
- 12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한 권
- 32 너와 내가 만나는 오늘의 한 소설



06

## ISSUE FOCUS

- 06 동아, 경계를 허물다



14

## HOT NEWS

- 14 지역맞춤형 디지털 융합혁신 추진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 15 대학 브랜드 다각화의 신호탄 첫 동아브랜드 '동감' 출시
- 16 지역산업 연계발전 산학협력 허브로 부상
- 17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양한 국가와 교류 강화
- 18 기업·공공기관·수도권 대학 등과 활발한 협약 체결
- 19 동아대 교수들 정부 및 학회에서 수상
- 20 신진 교수들 활발한 연구활동 눈길
- 21 석당박물관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상' 수상, 다양한 사업 선정
- 22 대학원생 및 학부생 논문 발표 및 각종 대회서 눈부신 성과
- 23 체육 분야 두각 여전한 스포츠 강자 '동아' 면모 보여



24

## DONG-A PEOPLE

- 24 산학전임교원 김병철·심대용 교수
- 26 제56대 당선의 총학생회 강기동 총학생회장
- 28 동아대 대외협력과 김대현 주무관
- 30 대방인더스트리(주) 홍일석 대표이사, 홍준형 이사



34

## HAPPY DONATION

- 34 발전기금 기부뉴스
- 40 발전기금 기부현황
- 42 후원의 집 소개 / DONG-A SNS

###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 121호)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콜림 051)202-9201

###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 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경계를 허물고 지혜를 얻다

## “인간의 창의성은 인공지능과 달리 그 고유성을 가지는가?”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영국 수석스대학 보덴 교수는 창의성의 영역을 정의하며  
변환적 창의성은 시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보았다.

하나의 문제에 네 개의 질문과 일곱 개의 답을 찾고  
허허벌판에서 세상을 뒤집을 의문을 만들어내는 능력-  
동아대학교는 '융복합 교육'에서 그 답을 찾았다.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틀에 박힌 사고,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닌  
창의적인 시선을 가진 인재를 세상은 원한다.

## “동아, 경계를 허물다.”

융합전공, 마이크로모듈, 리버럴아츠...  
그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준비된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다.  
대학 융복합 교육의 앞에 선 동아대학교가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



## Issue Focus

# 동아, 경계를 허물다

## 동아대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융복합 교육'

동아대학교가 전공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요구 변화에 맞춰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교육-연구-산학의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대학'을 혁신 비전으로 삼고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융복합 교육과정 운용체계 구축, 교육혁신 전략으로 마이크로모듈 선택형 이중전공제 도입 등 수년간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동아대의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형 융합 교육'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표현이지만, 해외 우수 대학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말한다. 그 선두주자에 미국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등이 있다. 브라운대는 '오픈 커리큘럼'으로 자유로운 전공 설계와 강의 수강을 보장하고 스탠퍼드대는 단과대학별 학제의 벽을 허무는 '비전 2025'를 선포했다. 하이델베르크대의 경우엔 다른 학부와 학과 간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타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수 채용 또한 융합연구 실적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교육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동아대는 사회수요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마이크로모듈제', LINC 3.0 사업단이 이끄는 '특화분야 융합전공', 교양학사학위과정 '리버럴아츠 전공' 등 정교한 융복합 교육을 설계해 눈길을 끈다.

▼ 동아대 리버럴아츠 과목 '책으로 읽는 음악, 음악으로 읽는 책' 수업 모습



## 마이크로모듈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업무상 요구되는 능력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취업 후 직무 교육 필요성을 느끼거나 따로 인터넷 수업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조합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교과목을 묶음으로 설계한 교과과정인 '마이크로모듈제'다. 이를 통해 복수전공제 이수 부담 없이 한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전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아대는 2018년부터 모듈 개발을 시작해 2021학년도 1학기에 첫 시행, 이후로도 단계적으로 모듈 설계를 확대해왔다.

기존 학과기반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의 자율적 전공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전공능력 및 융합역량 강화를 꾀하는 모듈은 외부환경과 학과 현황, 산업체 의견 등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사회진출 분야와의 연관성, 직무역량 중심으로 편성하고 교과목을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마이크로모듈제 이수 가능 학과는 아동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분자유전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식품영양학과, 건강관리학과, 의약생명공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영미학과, 컴퓨터공학과, AI학과 등 총 25개다.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신청 및 이수 가능한 마이크로모듈 수 제한은 없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모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한 '학과별 모듈이수 로드맵'에는 학생이 원하는 진출 분야를 위해 어떤 학과의 모듈을 선택하면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전공필수인 핵심모듈 과목들과 2·3·4학년 때 들으면 되는 전공선택 과목들을 합치면 구체적인 기업명과 분야가 도출되는 형식이다. 일종의 '이중전공제'인 마이크로모듈 이수자는 졸업 시 총장 명의 '이수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게 된다.



## LINC 3.0 특화분야 융합전공

융합전공은 2개 이상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해 제공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전공을 뜻한다. 과거 수직적인 사회구조가 부득이 수동적인 인재를 만들어냈다면 최근 사회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융합형 인재'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특화분야 융합전공'은 다양한 학과 및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 ICC연계교육 및 전용공간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해 실무형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융합전공은 '수소시스템 융합전공',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등 총 3가지다. 2022학년도 2학기에 첫 모집을 시작했는데 올해 2학기에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에는 50여 명이 지원하는 등(각 전공별 30명 모집 기준) 인기가 높다.

## LINC 3.0 사업단 해외 MOU 기업 및 대학



### 융합전공 개요



#### 수소시스템 융합전공

##### 참여학과

· 신소재공학과 · 기계공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 졸업학점

36학점 이상  
(전공필수 18 + 전공선택 18) 이수



####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 참여학과

· 식품영양학과 · 바이오메디컬학과  
· 건강관리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 졸업학점

36학점 이상  
(전공필수 18 + 전공선택 18 트랙 이수 요건 12학점)



####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 참여학과

전자 / 기계 / AI / 컴퓨터  
건설시스템공학과

##### 졸업학점

36학점 이상  
(전공필수 18 + 전공선택 18) 이수



▲ (상단) 2022학년도 융합전공 워크숍 / (하단) 글로벌 캠퍼스 디자인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 융합전공

### 매년 각 전공별 30명 모집 (2022학년도 2학기 첫 모집)

전공	2022	2023	현재 총 인원
수소시스템전공	30	25	47
바이오헬스규제과학전공	29	30	50
스마트모빌리티전공	30	17	30
총 합계	89	72	127



#### 수소시스템 융합전공

참여학과는 신소재공학과(주관), 기계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다. 본격적인 수소경제 시대 도래에 더불어,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한다. '소재-부품-시스템' 단위의 전 주기 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참여학과는 식품영양학과(주관), 건강관리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패션디자인학과다. 기능성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규제된 바이오헬스 제품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기준을 개발하는 분야로, 바이오헬스 제품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규제 과학 전문인을 양성한다.



####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참여학과는 전자공학과(주관), 기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AI학과다. 4차 산업혁명 시대 DNA(Data-Network-AI) 기술을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에 접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비교과 프로그램

전공 탐색 프로그램 및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융합전공자를 위해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에는 베트남과 영국, 2023학년도에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대학, 기업 및 기관을 방문하였다. 2학기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융합전공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2023학년도

#### 1. 수소시스템/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전공 탐색 프로그램

- 일시** 2023년 6월 28일(수) ~ 2023년 6월 29일(목), 1박 2일
- 장소** 킨텍스, 코엑스 등
- 참여자** 수소시스템/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자 13명
- 주요내용** 전공 특화분야 관련 전시회 탐방 및 미래 신기술 관련 기관 및 기업 견학

#### 2.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 2023년 7월 2일(일)
- 장소** 도쿄 및 나가노 일대
- 참여자**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재학생 8명
- 주요내용** 신수대학교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소 방문, 관련 기업 견학 등

#### 3. 수소시스템 융합전공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 일시** 2023년 7월 31일 ~ 2023년 8월 6일
- 장소** 싱가포르 일대
- 참여자** 수소시스템 융합전공 재학생 9명
- 주요내용** 싱가포르 난양공대 소속 실험실 방문, Materials Today Conference 2023 참관

#### 4.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전공 탐색 프로그램

- 일시** 2023년 8월 30일 ~ 2023년 8월 31일
- 장소** 서울 및 세종 일대
- 참여자**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재학생 24명
- 주요내용** 전공 관련 기업 및 기관, 전시 방문

#### 5. 융합전공워크숍

- 일시** 2023년 8월 21일~2023년 8월 22일
- 장소** 통영
- 참여자** 2023학년도 신규 융합전공 재학생 26명
- 주요내용** 전공 별 특강 및 팀미션



1) 2) 2022 리버럴아츠 다이닝  
3) 2022 리버럴아츠 오리엔테이션



### 리버럴아츠 전공

리버럴아츠(Liberal Arts)는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기초학문과 교양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자유인이 배워야 하는 교양이던 자유학예 7과(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에서 유래했다. 리버럴아츠는 특정 분야의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융복합 교양 교육을 지향한다.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 교육이 요구되는 인재를 키운다는 점에서 '미래형 교양교육'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전공능력을 벗어난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력과 넓은 시야를 키우게 하는 리버럴아츠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리버럴아츠 전공은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직업을 준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게끔 만든다. 미래에 탄생할 직업군을 대비하고, 스스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세부 교육 영역 4가지(그레이트 북스, 휴머니티·역사·예술, 함께 살아가기, 빅 퀘스천) 아래 개설된 교양학사필수 과목 및 교양학사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 세부 교육 영역

	2학년	3학년	4학년
<b>그레이트 북스</b> Great Boo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으로 듣는 음악, 음악으로 읽는 책</li> <li>● 고전으로 세상읽기: 근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으로 세상읽기: 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으로 세상읽기: 고대·중세</li> </ul>
<b>휴머니티·역사·예술</b> Humanity·History·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한 전환</li> <li>● 세계유산여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적 예술과 인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다</li> </ul>
<b>함께 살아가기</b> Living Toge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란 무엇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권력·평등</li> <li>●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li> </ul>
<b>빅 퀘스천</b> Big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벨상과 위대한 질문: 인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벨상과 위대한 질문: 자연</li> <li>● 사회를 움직이는 과학과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과 크로스테크</li> </ul>



### 그레이트 북스 Great Books

동서양의 고전을 읽고 생각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인류의 오랜 지혜를 배운다. 복잡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책으로 듣는 음악, 음악으로 읽는 책' '고전으로 세상읽기: 근대' '고전으로 세상읽기: 현대' '고전으로 세상읽기: 고대·중세' 과목이 개설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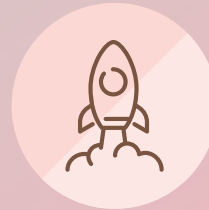
### 휴머니티·역사·예술 Humanity·History·Art

인류의 인간애를 엿볼 수 있는 휴머니티와 역사, 예술에 관한 조망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영감의 토대를 마련한다. '세계유산여행' '거대한전환' '창조적예술과인간성' '삶과죽음의의미를묻다' 과목이 개설돼 있다.



### 함께 살아가기 Living Together

사회적·역사적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과제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실천한다. '정의란무엇인가' '함께해결하는사회문제' '차이·권력·평등' '세계시민으로살아가기' 과목이 개설돼 있다.



### 빅 퀘스천 Big Questions

인류의 전환점을 만든 빅 퀘스천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을 살펴보고,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가져오는 것들과 사회적 가치를 고찰하며 미래사회를 전망해 본다. '노벨상과위대한질문:인문' '노벨상과위대한질문:자연' '사회를움직이는과학과기술' '4차산업혁명과크로스테크' 과목이 개설돼 있다.

정해진 교양학사필수 18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교양학사선택 18학점은 관심사와 취향에 맞춰 고르면 된다. 학년별로 권장 과목도 정리돼 있어 참고하면 좋다. 리버럴아츠 전공을 이수하면 입학 시 선택한 전공 학위 외에 추가로 리버럴아츠학사(Bachelor of Liberal Arts)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리버럴아츠만의 독특한 수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전공이 다른 2~4명의 교수가 매시간 함께 들어가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코칭, 전공이 다른 2~4명의 교수가 각 주차별로 파트를 나눠 강의하는 방식의 팀티칭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와 차별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에는 '리버럴아츠 다이닝', 올해는 '리버럴아츠의 밤'을 시행해 교수와 학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한 권

책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약에서 구해주지도 않는다. 고전문학이나 베스트셀러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준다. 비록 엉터리로 쓰여진 책이라도 운명처럼 만난 한 권의 책은 독자에게 통찰의 시간을 선물하고 삶의 물길을 바꿔 놓는다. 부산일보 기자들이 추천하는 삶의 물길을 바꿀 책을 소개한다.



출처 을유문화사



출처 김영사

##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유현준

유현준 건축가가 감명받거나 영감을 얻은 유럽, 북미, 아시아의 30개 건축물을 소개한다. 개성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랜드마크가 된 뉴욕의 '시티그룹 센터',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돔을 전망대로 만들어 시민들이 국회 회의를 내려다보는 디자인의 독일 국회의사당 등 20명 건축가의 혁신적인 사고를 접하게 하는 유용한 책이다.

## 기후 책 그레타 툰베리의 외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획으로 툰베리를 포함해 기후학, 지구물리학, 해양학, 경제학, 보건학, 역사학, 기후운동 등 각 분야의 리더격 전문가 104명이 필진으로 참가했다. 녹아내리는 빙산과 꺼지지 않는 산불, 종의 손실, 플라스틱 오염, 식량 위기와 물 고갈, 탄소예산과 기후정의까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과 해법을 선보이는 책이다.

## 꿀벌의 예언 1, 2 베르나르 베르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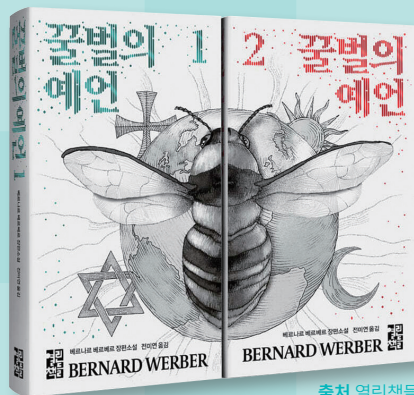
주인공 르네가 꿀벌이 사라지고 인류 멸종의 위기를 맞은 2053년 12월 지구를 보고 온 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 저자는 인류의 미래를 그리며 '꿀벌'을 키워드 삼아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인류를 포함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미래를 구할 힘은 현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인생의 역사 신형철

<인생의 역사>는 동서고금의 시 25편을 섬세한 언어로 이 시대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길잡이 평론집이다. 지은이는 고통의 각, 사랑의 면, 죽음의 점, 역사의 선, 인생의 원이라는 5개 주제에 시 5편씩을 소개했다. 시와 해설을 통해 삶의 지평이 점, 선, 면만이 아니라 무한한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발견하게 된다.

## 유라시아 견문 1~3 이병한

이 책은 서구가 압도한 20세기형 근대화의 종언을 맞아 유라시아 본연의 문명사를 통찰하며, 21세기형 개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책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유라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120년 전 동학운동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미국, 일본, 중국에 치우쳤던 세계사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읽고 나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하게 할 책이다.



출처 열린책들



출처 난다

## 뉴턴의 시계 에드워드 톨닉

과학전문기자 출신인 지은이가 마치 근대 과학의 태동기를 현장 중계하듯 풀어서 쓴 덕에 근대 과학의 영웅들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듯 읽힌다. 읽다보면 천체와 물리, 기하학과 수학의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당시에는 그렇게 믿었던) '신이 창조한 세계의 숨겨진 질서(자연법칙)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나갔는지를 어렵פות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강충경

핀란드의 숨겨진 저력을 살피는 책이다. 교육, 복지, 정치, 40% 여성 쿼터제, 환경과 에너지의 혁신 클러스터.... 무엇보다 핀란드의 저력은 혁신에 있다는 것. 실제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감수하는 실험 정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감수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학교의 품격 임정훈

학교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교육 관계자도 꼭 봐야 하지만,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할 책이다. 공간의 질서와 배치만 새롭게 해도 학교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곳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책. 이제라도 21세기에 걸맞은 학교 건축을 만들어 나가자.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제시한다. 그 속에 새로운 학교 건축, 우리의 미래가 있다.

## 오리진이 되라 강신장

운명을 뛰어넘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고 싶은가. 이 책에 상상을 초월하는 해답이 있다.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통찰과 아이디어가 도처에 빛난다. 창조의 원천은 하나는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을 보태는 힘 두 가지다. 특히 아픔은 섬세한 사람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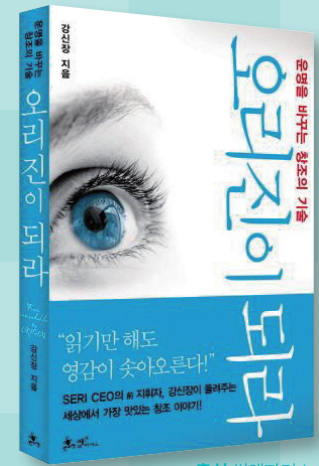
##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 카잔차키스

"검지 하나가 왜 없느냐고요? 질그릇을 만들자면 물레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왼손 검지가 자꾸 걸리적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끼로 내리쳐 잘라버렸어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어떤 인물인지 대강이나마 그려진다. 그는 겁에 질린 불쌍한 인간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고자 세워놓은 윤리, 종교, 조국과 같은 장애물을 단번에 깨뜨려 무너뜨릴 웃음을 가진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글\_부산일보 김상훈 문화부장, 이호진 모바일전략국 부장, 정달식 편집국에디터



출처 문예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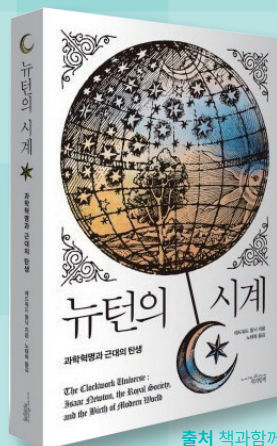
출처 샘애피퍼스



출처 우리교육



출처 서해문집



출처 책과함께



출처 맥스미디어



▲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 지역맞춤형 디지털 융합혁신 추진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동아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 선정됐다.

동아대는 이번 사업 일반트랙에 선정, 앞으로 최장 8년간 전체 사업비 180억 원을 지원 받아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을 혁신하고 AI-SW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대학 내 디지털 교육뿐 아니라 초·중·고 교생 대상 SW 기초교육 지원, 고품질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지역 기업과 산학협력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방향을 설정해 운영하게 된다.

동아대는 이석환 컴퓨터·AI공학부장이 사업 책임을 맡아 AI-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컴퓨터공학과·AI학과가, AI-SW 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경영정보학과·정보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등이 참여, 오는 2030년까지 사

업을 추진한다. 참여 학과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프로젝트 기관과 국내외 협력대학, 전문기관, 정부기관, 관련 협회, 외부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동아대는 특히 AI-SW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소프트웨어대학' 설립 등 교육체계 혁신, 동아 SW협동조합 중심 'D-Lab 기반 실증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SW 전공교육 강화, 융합대학 내 AI-SW 융합전공 및 융합마이크로모듈 운영 등 SW융합교육 확대에 나선다.

또 개방형 AI인프라 및 쌍방향 공유·협업·확산 플랫폼 'D-Hub' 기반 교육성과 공유 및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엔 전국에서 46개 대학이 신청, 동아대 등 13개 대학(일반트랙 11개, 특화트랙 2개)이 선정됐다.

## 대학원 체질 개선, 연구중심 대학 도약 '4단계 BK21사업' 대학원 혁신 영역 선정

동아대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대학원 혁신' 영역에 선정됐다.

이로써 동아대는 기존 '혁신인재양성사업' 영역 4개 사업단과 '미래인재양성사업' 영역 2개 연구팀에 이어 추가로 '대학원혁신' 영역 사업단(단장 박상원 대학원장)을 운영하게 됐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원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아대는 올해 11억 여 원을 지원 받는다.

박 대학원장은 "BK21 대학원 혁신 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며 "동남권 거점 사립대학이자 서부산 발전의 중심으로 지역혁신에서 핵심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단계 BK21 사업은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

세대 양성을 목표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한다.

동아대는 4단계 BK21 사업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미래 환경 생체방어 융합사업단(단장 조완섭 교수, 혁신인재/신산업 분야) △ICT 융합 해양 스마트시티 방재 인력 양성 교육연구 사업단(단장 이정재 교수, 혁신인재/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 △동남권 정착형 초정밀 화학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이현상 교수, 혁신인재/신산업분야) △학연병산 네트워크 기반 퇴행성질환 신약개발 인재양성사업단(단장 윤진호 교수, 혁신인재/신산업분야)을 운영하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교육연구팀(팀장 류민호 교수, 미래인재/사회과학 분야) △글로벌 관광 SDGs 교육연구팀(팀장 최규환 교수, 미래인재/사회과학 분야)도 활동하고 있다.



▲ 동아브랜드 '동감' 출시 기념 테이프 커팅식

동아대가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동아 브랜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더 화제다.

동아대는 학교 농장에서 키운 단감으로 만든 와인 '동감' 스토어 오픈 행사를 지난 4월 열었다. '동감'은 동아대가 대학을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어 전국구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동아 브랜드' 수익 사업의 첫 추자다. 판매수익금 일부는 장학금으로도 활용된다.

동감은 동아대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농장에서 재배된 단감을 농업회사법인 맑은내일(주)(대표 박중협)와 협업, 위탁생산(ODM)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학교 재정 건전성은 물론 지역농업 살리기와 지역사회 상생이란 취지도 살린 동감은 '동아대 단감' 줄임말로 '한가지로 똑같이 느끼다'는 사전적 의미와 '감동을 주는 동아대'라는 중의적 의미도 담겼다.

이날 시음 및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엔 이 총장을 비롯 강대성 부총장, 박헌태 대외국제처장 등 교무위원과 학생 등 모두 300여 명이 방문, 동감 첫 출시를 축하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 경영도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교수들 연구도 연구로 끝낼 게 아니다"며 "동아대 농장에서 키운 단감을 활용한 단감 와인 '동감'이 그 시작이다. 대학 재정 건전성을 위한 동아 브랜드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부산 사하구 송학캠퍼스 학생회관 2층(생협)에 20평 규모 동감 팝업스토어를 이날부터 열고 이날부터 열고 1년간 운영한다.

'동감'을 개발한 대외협력과 김대현 직원은 "동감 제작은 지난해 초 추진, 이번에 결실을 맺기까지 1년이 걸렸다"며 "제품 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있는 만큼 앞으로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본맛(동감 오리지널)을 비롯, 탄닌맛을 추가한 '동감 더 클래식(출시 예정)', 2030세대를 겨냥해 청량감을 더한 '동감 스파클링(출시 예정)' 등 세 가지 맛으로 이뤄진 동감 한 병 용량은 750ml, 도수 7%로 2만 5,000원에 일반에 판매 된다. 교직원 및 학생은 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051-200-6012)로 문의하면 된다.



▲ (좌) 동감 팝업스토어에서 단감와인 '동감' 시음 중인 이해우 총장과 교무위원들 (우) 동아대학교 농장에서 키운 단감으로 만든 와인 '동감'



대학 브랜드  
다각화의 신호탄  
첫 동아브랜드  
'동감' 출시

## 지역산업 연계발전 산학협력 허브로 부상

동아대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허브가 되고 있다.

동아대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사전기획)'에 선정,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개방형 연구실을 구축하고 지역기업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지난 6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지역산업(ICC) 연계 Open-Lab 혁신기술 매칭데이' 행사는 동아대 오픈랩(Open-Lab, 개방형 연구실)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알리고 지역기업 간 기술교류·상담 및 지역혁신 주제 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재 산학협력단장은 "지역혁신 동력은 '지산학 협력'에 있고 대학과 현장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아대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지역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자 통로로 지역혁신 거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아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동아대는 이 사업의 전신인 '청년 TLO 사업'을 포함, 지난 2018년 이래 6년간 총 37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동남권 대학 최대 규모인 청년기술전문인력 41명(사업비 약 6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아 기술사업화·지식재산권 및 취업·창업 교육과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동아대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을 통해 231명의 청년기술전문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중 123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 우수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등 지역(대학)의 취업률에 기여했다.

동아대 산학협력단은 또 제2회 산학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제1회 산학협력포럼('반도체·미래자동차·AI' 집중 육성 위한 전략 수립의 장)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4월 열린 이번 제2회 포럼은 '과학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확산 방안'을 주제로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을 초청, 과학기술 사업화 방안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 김 원장은 "과학기술 사업화는 검증 가능한 현상에 대한 보편적 법칙을 주어진 목표 구현을 위해 적용, 경제·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R&D 투자자 혁신 성과로 이어지고 미래 핵심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과학기술 정책 고도화와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는 이해우 총장 취임 후 대학의 사업화 역량 강화·확산과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동아브랜드 발전위원회'를 발족, 전용 센터인 'L2M(Lab to Market) Platform' 건립을 진행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와 특성화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학협력이 강한 대학!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에스엠팩, 중기부 TIPS 프로그램 선정

동아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에스엠팩(주)(SMFab, 대표 김재일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김재일 에스엠팩 대표는 "이번 팁스 선정은 에스엠팩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동파 방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1등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중소기업인재양성 박사과정 주관대학 선정

동아대 중소기업 계약학과인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가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신사업 분야 중소기업 인재양성 박사과정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동아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는 이로써 지난 2017년 석사과정과 지난해 2학기 학사과정(3학년 편입과정) 운영에 이어 오는 가을학기부터 박사과정까지 운영하게 됐다.

동아대는 이번 박사과정 주관대학 선정을 계기로 스마트제조 분야 학·석·박사 학위 간 연계과정을 구축하게 돼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사업 지방거점대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 1)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 동아대 '지역산업(ICC) 연계 Open-Lab 혁신기술 매칭데이'
- 2) 동아대 산학협력단 '2022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청년 기술마케터 마케팅 행사 및 워크숍 참석자들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양한 국가와 교류 강화

동아대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 대학 및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동아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규인증을 획득했다. 2주기에 이어 이번 3주기도 연속 인증을 받았고, '학위 과정'과 '어학 연수 과정' 모두에서 분야별 세부 지표 '올 패스(P)'를 달성했다. 이번 3주기 인증제 인증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인증 유효기간에도 해마다 인증대학 인증유지(모니터링)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아대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KOCHAM(코참, 회장 홍선)' 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교류 정보 공유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한-베트남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력 공급 및 이들의 현지 취업 지원 등에 나선다.

이어 베트남 자매교 호치민기술사범대학(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총장 단과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학교는 지난 2012년 첫 교류협정에 이어 지난 2018년 학술교류 협정을 갱신, 교류를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동아대 총장단이 호치민기술사범대학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동아대는 일본 대학 및 기업·기관들과도 교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일본 분교학원대학(총장 SAKURAI Takashi)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학생교류 추진, 관련 분야 교원 및 연구자료 교류 등에 나선다.

동아대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国立長寿医療研究センター,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와 국제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는 국립장수 연구센터와 초고령화 사회 대비 미래 전략을 공유하며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학생·연구자·교원 인적교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해우 총장은 "일본 현지 자매대학 및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동아대 특화 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산학협력 활성화에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뜻깊었다"고 말했다.

동아대가 미국 밴더빌트대학 메디컬센터 바이오메디컬 이미징데이터 분석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와 밴더빌트대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 관련 임상 연구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인재 육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 학생 교류와 교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두 대학 교류활동의 하나로 최근 2주간 Tufts 대학 공대(bioengineering) 학생 2명이 동아대를 방문, 의과대학(학장 강도영) 임상 실습과 정보수학과(담당교수 전수민) 리서치 과정에 참여했다.

동아대는 하와이 교육청 방문단과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동아대 공과대학 주관으로 AI, 컴퓨터공학 및 건강과학,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시설을 탐방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좌) '삼성R&D센터', '대우건설 베트남 THT 법인' 등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 방문 모습  
(우) 왼쪽부터 SAKURAI Takashi 일본 분교학원대학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 기업·공공기관·수도권 대학 등과 활발한 협약 체결

동아대는 글로벌기업 및 전문기관, 수도권 대학 등과 협약을 활발히 추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동아대가 부산국제교류재단(사무총장 황기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부산국제교류재단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학술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국제교류·개발 협력 분야 사업, 지역 기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및 교류 사업 등을 공동 기획하고 추진한다. 또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부산중소융합연합 낙동회(회장 윤철희, 이하 낙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가 미래산업 선도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공동연구 및 개발 등에도 협력한다.

동아대는 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아이드씨(Prestige BioPharma IDC, 이하 IDC, 대표 서석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와 IDC는 지역인재 육성과 현장실습 등에 적극 협력한다. 두 기관은 구체적으로 교육부 고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공동 진행,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계 구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실) 등 관련 부서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공동개발·시행, 공동 정책연구, 정보 공유 등에 나선다.

대한융접·접합학회(회장 박정웅)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융접 관련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과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펼친다. 또 학회의 부산 이전 및 대한융접·접합연구원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대는 중앙대(총장 박상규)와 학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은 국가 미래산업 선도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 학술대회 공동 개최, 부설연구소 공동 설립 등 학술교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연구 분야에서 학생 교류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에도 협력한다.



▲ 동아대와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들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학교 명예 높여

동아대 교수들이 각자 분야에서 명예로운 직책에 임명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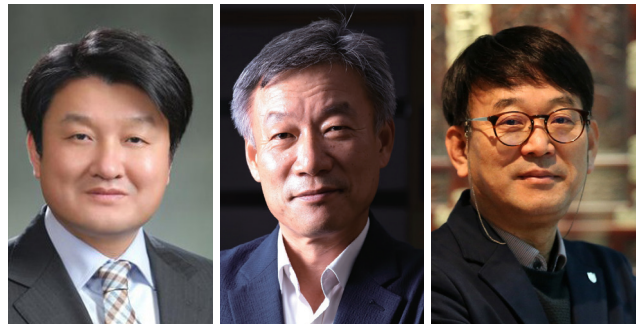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가 제7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도시외교와 민간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황 교수의 임기는 2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태영 교수가 제11기 국회입법지원위원회에 위촉, 10기에 이어 연임됐다. 제11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19개 분과에서 모두 148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하 교수는 법제사법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가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사건별로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자문을 제공,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컴퓨터공학과 옥수열 교수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5월까지 3년이다. 옥 교수는 지난해부터 국립부산과학관 혁신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와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과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최영호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도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수 교수는 한국근대건축보존회(도코모모 코리아) 제7대 회장으로도 선



▲ 왼쪽부터 황기식 교수, 송강직 교수, 김기수 교수

출됐다. 그는 대한건축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고 지난 2020년엔 한국 등 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공로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영학과 차경천 교수가 한국소비자학회 제26대 공동회장에 취임했다. 차 교수는 앞으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건축학과 이성호 교수(디자인환경대학장)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에 선임됐다. '2023 부산국제건축제'는 국내외 건축 작품을 비롯 대중을 위한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재난관리학과 대학원 이동규 교수(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가 '2023 서울시 서울청년센터 성과컨설팅단' 단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최근 제 41대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위원도 연임하게 됐다.

## 동아대 교수들 정부 및 학회에서 수상

동아대 교수들이 정부와 학회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으며 활약하고 있다.

김중욱 전자공학과(중개의학과 겸직) 교수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로봇공학·최적화알고리즘·AI윤리 분야에서 총 45편의 SCI급 논문 게재,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AI로봇윤리 과제를 수행하며 AI윤리에 이젠트 개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의뢰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주도, 2020년부터 중견연구과제로 교육로봇·노인케어로봇·배송로봇 윤리준거 개발, 한국로봇학회 로봇윤리연구회 창립, 동아대 AI로봇윤리기술센터 설립 등 'AI윤리의 선구적 연구 및 보급 확산'에 힘썼다.

박헌태 건강관리학과 교수가 '2023 비만예방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외국제처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교수는 지난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 아동비만예방사업 책임자로 수년간 부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수행을 통해 부산 아동 비만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2021 글로벌헬스케어워크 유공자 시상식'에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헌상(화학공학과)·이선희(패션디자인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제3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헌상 교수는 한국유변학회 추천으로 '탄소복합재료의 형태학모사에 관한 유변학 이론 및 시험'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공학 부문에서, 이선희 교수는 한국의류학회 추천으로 '열가소성엘라스토머를 이용한 Re-entrant 패턴의 다양한 기울기 각도별 3D 프린팅 손목 보호대의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종합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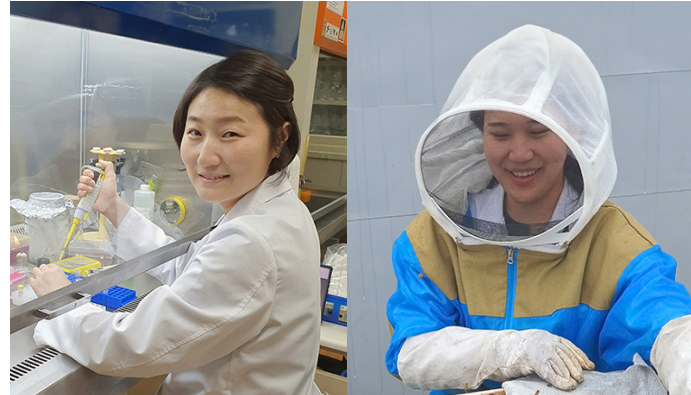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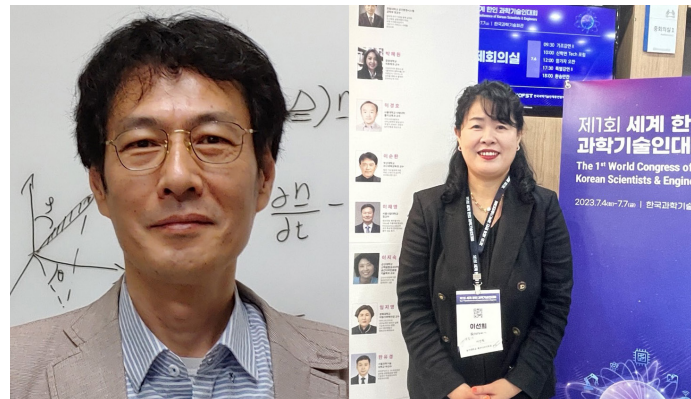
성이용 건축학과 교수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 발표대회'에서 건축 계획 분야 젊은 인재(49세 미만)로 뚜렷한 성과를 이루고 그 학술적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표창하는 무애(이광노) 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건축계획 분야에서 총 34편의 SCI, KCI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0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상', '2021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 국제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2022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응용생물공학과 공중생명공학 연구팀 김보연 교수와 김윤희 대학원생이 한국양봉학회가 '세계 벌의 날'을 앞두고 벌 관련 연구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포상하는 '우수연구자상'과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와 김 대학원생이 소속된 동아대 공중생명공학 연구팀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은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연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뒤영벌의 생태 교란 및 대응 연구' 과제를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공동 수행하고 있다.

패션디자인학과 서추연 교수가 류상(Lui, Xiang) 교수(Dept. of Fashion Design, Xian Yang Normal University)와 공동으로 2023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 제목은 'Development of Rushan (襦衫) and Qun (裙) Patterns for Traditional Chinese Wedding Dresses Using a Virtual Fitting Program'으로 버추얼(가상) 피팅 프로그램을 활용, 당대 복식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전통 혼례복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션디자인학과 이신영 교수의 저서 『드로잉 초보자를 위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사)한국대학출판협회 '올해의 우수도서(2022)'에 선정됐다. 이 책은 얼굴 드로잉과 포즈 변형, 착장화, 도식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제페토 스튜디오 등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표현 기술을 알기 쉽고 따라 하기 쉽게 많은 예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   |   |                       |
|---|---|-----------------------|
| 1 | 2 | 1) 이헌상 교수             |
|   |   | 2) 이선희 교수             |
| 3 |   | 3) 성이용 교수가 수상하고 있는 모습 |
| 4 | 5 | 4) 김보연 교수             |
|   |   | 5) 김윤희 대학원생           |



## 신진 교수들 활발한 연구활동 눈길

동아대 신진 교수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말초신경 변성-재생 커플링 연구실’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심화형)’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말초신경 재생 지원과 말초신경병증 치료 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척수손상 재생 연구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영양학과 이보경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연 2억 원 내외 연구비를 10년간 지원받아 우수여행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미생물) 소재를 개발해 인류의 지구 밖 환경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건강관리학과 김경화(BK21 미래환경 생체방어 융합사업단) 교수가 단독저자로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에 ‘미토콘드리아유래 펩타이드에 의한 파킨슨병 신규 치료기술 개발’이란 제목의 실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의예과 예방의학교실 이승호 교수 논문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추천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생후 추적 자료를 통해 수은의 비만유발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개의과학과 홍영빈 교수 연구팀이 샤르코-마리-투스병 (Charcot-Marie-



▲ 왼쪽부터 이보경 교수, 김경화 교수, 이승호 교수

Tooth disease)의 새로운 병리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굴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의학 권위지인 ‘Brain(IF 15.255)’에 온라인 게재됐으며,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소개됐다.

바이오메디컬학과 김혁순 교수팀은 약리·약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온라인 판에 논문을 게재,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논문에도 등재됐다.

화학공학과 사정훈 교수가 교신저자로 활약한 논문 2편이 SCI 학술지 ‘Energy’와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에 게재됐다. 사교수 팀은 이 논문에서 화학물질 주입 및 기계적 교반 없이 실리카 샌드를 활용, 세계 최고 수준의 CO2 포집 특성 구현을 밝혀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글로벌인재개발센터·LINC3.0사업단 등 체계적 취업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실시



▲ ‘2023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재직선배 초청 직무-산업 교육’



▲ ‘K-Move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과정 14기 취업캠프’ 참가자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등이 체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2023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재직선배 초청 직무-산업 교육’은 현지자들이 기업별 직무역량과 산업동향 등을 강의하고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대비 등 취업 중인 재학생들의 궁금증도 현장에서 해결해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관 ‘찾아가는 취업 특강’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찾아가는 취업 특강’은 기존 취업특강과 다르게 학과에서 직접 강의 내용과 강사 등을 선정해 이뤄지는 등 학과 요구를 반영한 ‘Bottom-up 수요자 맞춤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3 K-Move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사업’도 본격 운영에 나섰다. 10년 연속 선정돼 운영되고 있는 동아대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 과정은 모두 4개로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4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서 동아대가 유일하다.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DN오토모티브와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DN그룹 채용설명회를 계기로 대학과 기업 간 지속가능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채용 공감대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동아대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기반 지산학 협력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이론수업과 현장실습 학기를 번갈아가며 수료할 수 있는 학사과정 혁신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성 겸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 석당박물관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수상, 다양한 사업 선정

석당박물관이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사업에도 선정돼 대학과 지역이 어우러지는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석당박물관의 발달장애인 대상 방문형 체험 프로그램 '나눔 박물관 학교'가 부산 서구청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부산서구장애인복지관·부산서구정신건강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협업사례로 크게 인정받았다.

또 '청소년 박물관 학교'는 자유학기제 대상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중학생들이 직접 석당박물관 유물 전시연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물관 건물(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은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서구 베스트 레코드'에 선정됐다.

석당박물관 건물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국가등록문화재)는 1,023일간 피란수도 부산의 정치·행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역사적인 건물로 인증 받아 '서구 베스트 레코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석당박물관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 오는 11월까지 '융합의 시대-동아 큐레이션 발전소'를 운영한다. 올해 이 사업으로 박물관의 학문적·사회적·물리적 경계를 낮추고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시즌제 전시 및 이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문화재청의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기관'에도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석당박물관은 합천 봉계리 고분 유적(1985년 발굴) 등 국가 귀속문화재 1,900여 점 이관과 미정리 유물 300여 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석당박물관은 이 사업으로 지난해 경상남도 함양 지역 문화재 정리 결과물인 『보관문화재-함양-』 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석당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에도 선정, 부울경 권역 중 유일하게 선정, '부산 전차 893'이란 제목으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한다.



- 1) 석당박물관 내 고고실
- 2) 동아대 석당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정리 유물 정리 작업
- 3) 김기수(왼쪽) 동아대 석당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6회 전국관인대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교육부문 수상 모습

## 대학원생 및 학부생

### 논문 발표 및 각종 대회서 눈부신 성과

동아대 학생들이 각종 학회 및 대회에서 수상하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최재성(4) 학생이 세계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철강제조 경연대회(스틸챌린지)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세계 대회를 제패한 쾌거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최 학생은 "세계 스틸챌린지 대회 학생부 우승자로 선정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주최 측과 많은 지원을 해준 학교, 학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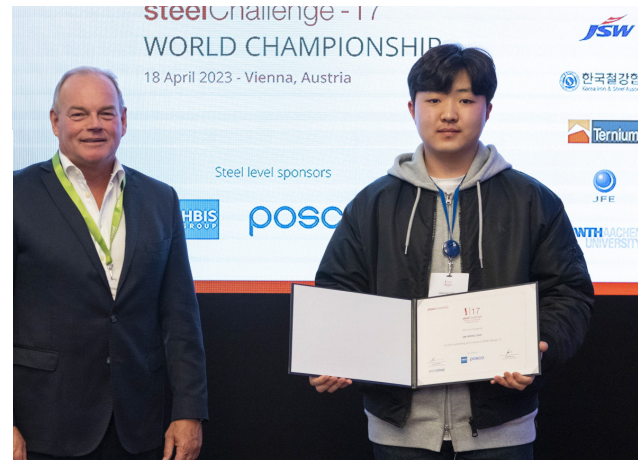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노하진(4) 학생이 작품 '출구'로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에서 2관왕 쾌거를 올렸다.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은 올해 대학 6개 팀이 최종 제작지원작으로 선정, 최우수작품상·우수작품상·아고라상 등 3개 상을 놓고 심사를 받았다. 노하진 학생은 이 부문에서 '우수작품상'과 '아고라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작품 '출구(出口)'는 중장년층 여성들의 문화적, 심리적 팬텀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생명자원산업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학술동아리 에코리본팀(석사과정 이정민·김해빈, 4학년 이예지, 3학년 김석현)이 '2023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에코리본팀은 5개월간 총 연구비 2,100만 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에코리본팀은 또 '부산 지역산업 발전 로드맵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에코리본팀(4학년 이예지, 김민지, 김나영, 김채원)은 조류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의 조류 기능성 자원화 기술을 내용으로 한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부산시 주최 '청년도시재생사 청년캠프톤'에서 금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무역학과 동아리 '동아 트레이더스' 학생들이 '제12회 부산 대학생 해운·무역·물류 학술 교류전(BITLO)'에서 대거 수상했다. 특히 이번 12회 대회는 해운·무역·물류 연합동아리 'BUSAN' 창설 이후 첫 학술 교류전으로 동아대에서 참가한 4팀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 (상단) 동아대 신소재공학과 최재성 학생 / (하단)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 2관왕 수상작 '출구(出口)'를 만든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



▲ 왼쪽부터 이수진, 최수빈, 조연수, 서정민 석사과정생

대학원생들도 연구사업 선정과 논문 발표 등 활약을 이어갔다.

BK-21 FOUR 교육연구단, 화학공학과 대학원생 4명(이수진, 최수빈, 조연수, 서정민)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주관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에서 4명의 대학원생이 선정된 사례는 부울경 지역에서 동아대가 유일하다. 또,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대학원생(김민주) 및 학부생 구성팀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기초연구실(BRL)이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TPU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 로봇손의 제어기 설계에 관한 연구'로 우수논문발표상(구두 부문)을 수상했다.

건강관리학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팀이 '2023년 한국운동생리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에서 대거 수상했다. 양자경 대학원생은 선행 연구업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연구자상을, 박혜진 대학원생은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또 4단계 BK21사업단 소속으로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발표상을 받았다.

응용생물공학과 곤충생명공학 연구팀이 '한국곤충학회·한국응용곤충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진행과 함께 SCI 논문(동물학 분야 상위 5% 이내) 'Developmental and Comparative Immunology'에도 게재했다.

동아대 대학원 교육학과 조윤진(교육심리전공, 지도교수 조규판) 박사수료생이 (사)한국청소년학회 주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의학과 권정연(예방의학 전공) 박사과정생이 (사)한국환경보건학회 최우수발표논문상을 받았다. 그는 '폐근육광산, 제련수 주민의 카드뮴 노출에 의한 혈액 DNA methylation 분석' 논문으로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수상했다. 또한, 화학공학과 송만성 대학원생이 저저자로 활약한 연구팀이 금속 합금 및 전자재료 분야에서 SCI 학술지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에 논문을 게재했다.



▲ 왼쪽부터 김민주 석사과정생, 조윤진 박사수료생, 박혜진 대학원생



▲ 2023 동아대학교총장기 태권도대회 겸 학생선수권대회 단체사진

## 체육 분야 두각 여전한 스포츠 강자 '동아' 면모 보여

동아대가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여전한 스포츠 강자임을 드러냈다.

동아대는 2023~2026년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연구센터(IOC Research Centre Korea) '협력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전형필 체육학과 교수는 한국 IOC 리서치센터 의과학연구국장으로 선임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11개만 선정돼 있으며 한국(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동북아시아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연구소다.

동아대는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2023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동아대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0개 대학 중 9번째로 많은 금액 규모인 1억 1,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지원금은 대학운동부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에 사용된다.



▲ 동아대 태권도 품새단

동아대가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회장 김상진)와 '신산업 기반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계 혁신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공동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히 이수한 학생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동아대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부산 태권도 협회와 공동으로 '2023 동아대학교총장기 태권도대회 겸 학생선수권대회'도 개최했다. 이해우 총장은 이날 태권도 명예 6단 단장을 수여받았다. 태권도 명예 단장은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 등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 특별히 주어진다.

스포츠단 씨름부 김준석 선수가 최근 증명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용사급 금메달을 획득, 울릉도 열린 전국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 선수는 제53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3월)와 학산김성률배전국장사씨름대회(4월)에 이어 이번에도 용사급

(95kg 이하) 1위에 올라 3관왕의 위업을 과시했다.

동아대 태권도학과 품새단이 '제38회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기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1~3위를 모두 싹쓸이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김보민(1) 선수와 이서진(1) 선수가 각각 남녀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남자 개인전에서 구제호(2) 선수가 2위를, 전성민(4)·전진배(2) 선수가 3위에 올랐고, 여자 개인전에선 남근혜(3), 김하은(2) 선수가 3위를 기록했다. 단체전에선 구제호(2)·정유성(2)·최정훈(1) 선수 팀이 1위를 차지했고 정혜린(3)·김태은(1)·전진배(2) 선수 팀이 2위, 조재우(4)·김하은(2)·이서진(1) 선수 팀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산업현장 전문가,  
대학으로 오다

자율주행자동차기술전문가 - 김병철교수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전문가 - 심대용 교수

*Shim  
Dae  
Yong*



*Kim  
Byung  
Chul*



# 전국 최초 산학교수 정년트랙 파격 임용

김병철 교수(산업경영공학과), 심대용 교수(전자공학과)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산학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미 두 분 교수님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셨는데 동아대에 오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심대용** SK하이닉스에서 27년 넘게 근무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했습니다. 이해우 총장님의 제안으로 동아대와 부산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지가 외갓집이고 외삼촌이 동아대 동문입니다.

**김병철** 부산은 저의 고향이며 동아대학교는 모교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전략해 가는 부산에서 그동안 익혀온 4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와 기능 안전, 사이버보안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전문 인력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 글로벌 부산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 전 세계적인 관심 분야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신 두 분 교수님의 강의에 학생들의 기대도 컸을 듯합니다. 첫 학기 강의를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김병철** 부산의 학생들은 UAM(날으는 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드론 등에 관심은 많지만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나 협의체가 부산에 부족하다보니 지식과 학문의 전달에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꿈을 실현해 가면 좋겠습니다.

**심대용**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공부와 자질, 역량, 그리고 실무에서 배운 경험을 전달했습니다. 반도체나 첨단산업에서 전자공학이라든지 공대생으로 앞으로 바뀔 니즈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학기말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학생의 피드백을 듣고 동기부여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학생들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두 분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할 때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요?

**심대용** 반도체는 다양한 분야와 공정이 존재하기에 공학 관련 아카데미한 기초 이론과 더불어 C언어, 파이썬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과 검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철**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입니다. 또 프로젝트 진행 시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Complex system(복잡계) 고려', 리스크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리스크를 제거하는 기술력과 지혜를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는 'Risk based thinking'입니다.

앞으로 강의 방향이나 생각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철** 동아대 내에 있는 기술검증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센터로 발전시키고 검증 과정에 동아대 그리고 부산이 필수적인 글로벌 검증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심대용** 반도체 최강국이 되기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수도권 몇몇 대학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동아대를 비롯한 지역대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도체·자율주행 산업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면 좋을 역량이나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심대용** 빅데이터 기반의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의 폭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분야는 성능 개선과 에너지 효율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공학 기초 지식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평소에도 시스템하드웨어 기술과 이를 여러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심증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김병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해 창의적이고 연구 중심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더불어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우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종이신문 읽기,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토론하기와 책 읽기도 소홀히 해선 안됩니다.

부산 시민들 또는 동아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철** 부산이 동아대를 주축으로 시스템을 혁신해 R&D 위주의 도시가 되길 바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인 바다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 해양산업과 해양도시 건설 등에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외부의 역량있는 전문가와 전략가들이 협업하여 글로벌 넘버원 도시로 발전시킬 백년대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길 바랍니다.

**심대용** 연구개발과 제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고, 특히 가공기술이나 공정이 기존의 반도체보다 어려운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주목받는 SIC반도체는 선도적으로 기초연구를 진행해 기술을 개발하는 등 명문사학 동아대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실무 역량을 보유한 인력양성에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파트너로  
학생의 동반자로

66 미력하나마 남을 돕는 일에 성취감을 느꼈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모교 발전에 작은 행보를 더한  
학우들의 동반자로 기억되길 바란다. 99

Kang  
Ki  
Dong

# 학교 발전을 위해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제56대 당신의 총학생회 강기동 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학과 17학번)



## 대학에서 총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의 가장 큰 역할은 소외될 수 있는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외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회장, 단과대회장, 총학생회장까지 5~6년 남짓 학생회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현실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학생들의 바람을 더 잘 전달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문화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한 번뿐인 학교생활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선거본부 이름 '당신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공약사항 중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학교, 학우들의 사소한 의견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로 당신이 만드는 동아대학교, 즉 당신의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시작, 당신의 청춘, 당신의 목소리 등 4가지 카테고리 모두가 모두 중요하지만 역시 당신의 꿈에 무게가 실립니다. 학우들에게 취업과 졸업 후 진로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위원회를 신설해 취업지원실과 학라인으로 소통하며 협업 중에 있습니다. 1학기에 취업박람회를 열었고, 2학기에는 커리어위닝이라는 취업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취업지원실과의 협업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 견고해지고 영향력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는 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엔데믹과 함께 일상이 회복된 만큼 올인원 페스티벌 공약으로 캠퍼스 낭만을 느끼고 동아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축제도 신경을 썼습니다. 1학기 봄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가을 대동제 역시 학생복지과와 협업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반 학생일 때와 총학생회를 직접 운영해 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해 본 소감을 들려주세요.

우선 14개 단과대학의 의견과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학교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협회에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가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나, 행사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단편적인 결과만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는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들려줘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으로 참석해 처음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후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민의를 전달해야 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을 2년 정도 하며 학교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학교 재정 상태나 노후시설 보수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 등록금 수입 필요성이 명징해졌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동아대학교 타이틀을 갖고 사회생활을 이어나갑니다. 학교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위상이 떨어진다면 동아대를 거쳐 간 수많은 선배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구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역설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사용한다는 학교측 약속을 받고 등록금 인상을 찬성했습니다.

## 5월 초, '당신의 봄축제'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2015년 이후 모처럼 부활한 봄축제였고, 당신의 피크닉, 플로깅, 물물교환 등 플리마켓까지 올해 특히 총학생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는데, 축제 콘셉트는 무엇이고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요.

3년여 동안 코로나로 대학생활이 침체되면서 학생들이 캠퍼스 라이프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올해는 후배들에게 즐거운 대학생활의 시작을 알리자는 취지로 봄에 맞게 벗꽃 축제로 콘셉트를 정하고 기존 무대 버스 형식에서 탈피해 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보다 많은 학우들이 축제에 참여하길 바랐고 코로나로 지났던 시간을 보낸 지역상권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생의 의미도 생각했습니다.

## 학생들에게 '당신의' 총학생회는 어떤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지요.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공과를 말하기보다 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같이' 플랫폼과 행사를 진행하며 동아대학교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했던 동반자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행정의 일선에서  
대학 브랜딩 가치를 창출하다

66 단감 와인 '동감'이 동아대와 지역사회 잇길 99

*Kim  
Dae  
Hyun*



# 젊고 새로운 시도로 지역사회와 '동감'하다

동아대 대외협력과 김대현 주무관



## 단감과 와인, 어떤 술인가요?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동감은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종합농장에서 재배한 단감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이름에는 '동아대학교 단감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同感'이라는 뜻도 있죠. 패키징에 사용한 주황색은 단감 색깔에서 따왔어요. 시인성도 좋고 활력이 넘치는 색상이라 기존의 동아대를 대표하는 컬러인 진청색 대신 시도해봤는데, 학교의 젊은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 최근 전통주 플랫폼이 주목받는 등 젊은 층에서 우리 술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단감을 이용한 전통주 형식의 와인 기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우리 대학 농장에서 재배하는 단감은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 다. 대외협력과에서는 매년 고액 기부자 분들께 단감을 발송하기도 했 구요. 매년 약 200박스(2,000kg)를 발송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를 가공하면 훨씬 많은 이들에게 우리 대학 단감을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됐어요. 초기에는 단감즙이나 주스 등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전통주 형식의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학교 행사를 비롯 한 어느 장소에서든 '건배주'로 한 잔만 마시더라도 기획 의도가 잘 전 달되는 형태라고 판단했어요.

##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힘들진 않았 나요?

동감이 나오기까지 3가지 주요한 도전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향 후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 지역전통주 요건을 갖추는 거였어요. 동감은 창원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맑은내일을 통해 위탁생산(ODM)하는 제품 이에요. 부산·경남지방 80여 개 전통주 제조업체 중 단감 관련 주류·음 료 개발 실적이 있으면서 지역전통주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업체라서 이곳을 발굴하고 제품 생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 니다. 두 번째는 택배 발송 시 깨지지 않는 박스 패키징 개발입니다. 10 여 개의 박스와 완충재 샘플을 제작해 여러 방식을 시도하고 실험했었 고, 이제는 택배 발송 시 '파손면책'에 기본 좋게 동의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제품 성공 여부를 가능할 수 없는 상황 에서 3개 주체를 설득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동감은 현 재 대학에서 기획해 학교 농장에서 원재료인 단감을 재배하고, 맑은내 일이 제조하며, 생활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구조예요. 각 주체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학내 유관부서, 맑은내일, 생활협동조합에 협 조를 구하기 위해 투입예산, 수익성, 위험부담, 관련 법령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지금의 '동감'입니다.

## 동감이 출시되고 팝업스토어까지 완성했는데, 이후 목표와 계획이 궁 급합니다.

팝업스토어의 경우엔 시작은 동감으로 했지만 '동아 굿즈' 전체를 판매 할 장소로 발전시키는데 최종 목표예요. 동감은 초도 생산분 3,000병 이 3개월 만에 매진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아 브랜드'로 나선 첫 주자이기도 한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대학의 수익사업이 아 니라 수익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파일럿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파일럿 단계에서 시장의 반응이 좋은 걸 확인했으니 이 후부터는 좀 더 낙관적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지역주민과 미래의 학부모가 될 젊은 세대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젊은 동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 는 거죠. 이를 위해 오프라인으로는 무용·경 지역 판로를 넓히고, 온라인 판매까지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승학캠퍼스 학생회관에 마련된 동감 팝업스토어

##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선·후배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동아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직 원들을 조명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조용 히 맑은 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동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선한 영향력  
펼치는 명품 동아인

66 돈 버는 것은 기술, 쓰는 것은 예술 99



*Junny  
Hong*

*James  
Hong*

홍준형 이사님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 기업 운영도 사회 공헌도 대를 이어 함께하는 동문父子

대방인더스트리(주) **홍일석 대표이사, 홍준형 이사**



**동아대학교 동문 부자父子이신데, 동아대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홍일석 대표** 사회생활을 하며 전 세계에서 모교를 빛내고 있는 선배들의 활약상을 많이 접했고, 저도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들인 홍 이사에게 지역 명문인 동아대학교로 진학을 권했습니다.

**사회사업이나 기부활동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홍일석 대표** 동문이신 강병중·신정택 선배님, 故 신춘호 선배님, 김만수 선배님 등 모교와 사회를 향한 헌신과 기여에 앞장서신 훌륭한 선배님들의 숭고한 뜻을 저도 마음 깊이 새기다 보니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고의 수도 로메에 안과와 산부인과 병원을 지어 의사를 초빙하고 한국에서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모아 에이즈 예방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내전이나 풍토병으로 고아가 된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용접, 밀링, 선반 등 기초 공업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은퇴한 기술자를 연결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자 고아원 기술학교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홍일석, 홍준형 부자

**홍준형 이사가 보다 넓은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3개국 언어를 배우도록 하셨고, 발전기금 전달식에도 함께하며 모범을 보이셨는데, 아버지로서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홍일석 대표** 가장 오래 직장생활을 했던 곳이 아프리카 토고입니다. 토고는 예전 프랑스 식민지로 들어가 공용어이고,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영국 학교여서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것은 수출이고, 아들이 수출입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외국어는 필수인 시대여서 스페인어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며, 한 번의 덕행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되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이나 기부 등 아버지의 이런 활동에 가족들은 어떻게 응원을 하고 있는지, 자식의 입장에서 보는 기업 대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홍준형 이사** 기업 대표로서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편으로 다른 취미생활도 없이 1년 365일 오롯이 사업에만 몰두하십니다. 기업은 수익 창출 못지않게 사회 환원이 중요하다고 확고한 경영철학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공헌과 기부활동을 이어가는 아버지를 보면 자랑스럽고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가족들 모두 아버지의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모범생인 동생과 달리 방향의 시간을 보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해외유학부터 다방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던 분이 아버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아버지 회사로 옮긴 후 경영철학이나 마인드에 있어 세대 차이로 처음에는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가로서 아버지를 이해는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하고 계신 동아비즈니스포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홍일석 대표** 동아비즈니스포럼은 부산·경남 최대 기업인 포럼으로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님과 권오창 전 총장님이 초대 설립자로 뜻을 세우고 동아대 출신들이 힘을 모아 설립했습니다. 저는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감사로 포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이 예전의 산업도시,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되찾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2030월드엑스포 성공적인 유치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도 많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국인이 거의 없었던 1990년대부터 전역을 누비며 시장을 개척해온 기업가로서, 동아대 동문으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일석 대표** 안정적인 대기업도 좋지만 더 넓은 세계에서 역량을 펼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모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지만,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에서 청춘을 다해 도전해 보고 싶은 후배들이 있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적극 전수하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 너와 내가 만나는 오늘의 한 소절

한 곡의 음악을 감상할 때 연주자와 청중은 작곡가가 창조한 소리의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 음악은 순수한 감정의 교류, 즉 소통을 경험하게 한다. 국제신문 이선정 편집부국장이 원하는 말러와 라흐마니노프, 베를리오즈의 음악을 소개한다. 음악적 감동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돌아있는 불신의 가시를 잘라내고 미소 띤 얼굴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 말러 교향곡 9번

후기 낭만과 대표 작곡가인 말러의 교향곡들은 대편성이 많아 웅장하다. 그래서인지 그의 음악을 들으면 웬만한 록 음악보다도 더 격렬하고 신이 난다. 인간 감정을 가장 아래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당기고 또 끌어내리는 기분을 말러 교향곡을 들으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9번은 대편성의 장대함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심연의 인간 감정 본연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화려하고 치열한 1~3악장에서 이어지는 4악장 아다지오는 서정적인 음률로 시작했다가 악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마무리된다. 마치 과란만장한 인생을 산 뒤 숨을 거두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보는 듯하다. 잦아드는 악기 소리는 눈을 감기 직전의 모습과 닮았다. 공연장에선 악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관객의 박수가 나오기 전까지 2분 이상의 긴 침묵이 이어지는데, 이는 마치 임종 시 인간의 마지막을 영예롭게 기리는 의식 같이 느껴진다. 1910년 완성된 이 곡은 죽음을 직감한 말러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체념한 내용을 담았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텍스트적 풀이가 청각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죽음을 앞둔 작곡가의 곡을 죽음을 앞둔 지휘자(연주 후 4년 뒤 타계)가 담담하게 그려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루체른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2010년 연주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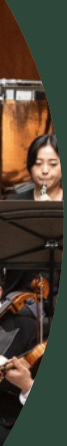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9번 연주 | 출처 : 부산시립교향악단



##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엑토르 베를리오즈(1803~1869)의 '환상교향곡'은 일상을 벗어나 환상 속 무도회에 참가하는 착각을 들게 한다. 베를리오즈가 이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 그는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가슴 아파하며 자살을 결심한 그는 어느 날 악몽을 꾸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고 자신은 단두대로 가는 끔찍한 그 꿈이 준 충격을 음악으로 바꿨다. 그것이 바로 환상교향곡이다. 현과 목관의 조화로 힘차게 시작한 1악장은 '무도회'를 주제로 한 2악장으로 이어지고 2악장에서는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현악기들과 마주하게 된다. 3악장을 지배한 오보에의 독주와 팀파니 트레몰로는 비극으로 가기 전 음산하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고 극단으로 치닫는 4악장. 단두대로 가는 장면을 행진처럼 묘사한 4악장과 '마녀의 밤 잔치의 꿈' 제목이 달린 5악장은 잔혹동화 같은 한편의 '음악 난장'을 확실히 귀로 확인시켜 준다. 이 음악의 시그니처 파트인 2악장 '무도회'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듯한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 '환상의 축제'와 잘 어울린다. 샤를 뫼시 지휘의 파리오케스트라 연주(1967년)는 불후의 명반으로 꼽힌다.

루체른페스티벌 /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로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연주하는 루체른페스티벌오케스트라. | 출처 : 이선정 기자 촬영본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올해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 탄생 150주년이다.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여서 그런지 피아노곡이 특히 유명하고 많이 연주된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은 '클래식 음악계의 대중음악'이라 불릴 정도로 많이 연주되는 가장 익숙한 곡 중 하나다. 천재 피아니스트가 어릴적 자신을 키워준 피아노 학원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곡을 연주하는 영화 <호비츠를 위하여>의 마지막 장면은 큰 감동을 안긴다. 피아노협주곡 3번은 클래식 음악계 '젊은 거장'으로 떠오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작년 6월 반클라이번콩쿠르제음악콩쿠르에서 이 곡으로 대상을 받으며 더 유명해졌다. 피아노협주곡 3번은 1909년 라흐마니노프가 연주여행 차 들른 미국 뉴욕에서 직접 초연한 작품이다. 피아니스트도 치기 어려워하는 곡으로 꼽힐 만큼 '악마적 기교'의 난곡으로 유명하다.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러시아 정서가 어느 작품보다도 극대화됐다는 점이 이 곡의 매력을 더한다. 반클라이번콩쿠르에서 마린 알슘 지휘로 포트워스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임윤찬의 연주는 단박에 그를 세계적 스타덤에 올릴 정도로 명연주로 평가된다.

반클라이번콩쿠르 /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연주  
출처 : 유튜브 The Cliburn(<https://youtu.be/DPJL488cfRw>)

글\_국제신문 이선정 부국장



###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 오픈

발전기금 전달식 이어져

동아대 공과대학(학장 장상목)은 1955년 설립 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인재를 양성, 새로운 도약과 미래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과대학 발전에 헌신한 인사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김재진 경동건설 회장·이상윤 전 총장 등 11명을 명예의 전당에 추대, 오픈식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공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승학캠퍼스 공과대학 2호관 로비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상윤 전 총장(1,000만 원)과 공과대학 총동문회(2,000만 원), 화학공학과 교수(1,100만 원) 등은 모두 4,100만 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해우 총장은 “불모지와 같았던 환경에서 공과대학이 명문으로 자리 잡는 데 선배 교수님들과 동문들께서 큰 역할을 하셨듯이 후배 교수님들과 동문들이 공과대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추대될 분을 계속 발굴해 재학생들과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줄 것을 당부 드리고 총장으로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 오픈식에서 이해우(왼쪽에서 네 번째)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의과대학 2기, 발전기금 2억 원 전달

'홈커밍데이' 개최



동아대 의과대학 2기 동문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의과대학(학장 강도영) 2기 동문회(회장 정용수)가 '홈커밍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아대 의대 2기 동문회는 단체(2기 동문회 7,000만 원)와 개인(이현 1억 원, 이제명·정일권·허준 각 1,000만 원) 기부를 통해 마련된 총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학교에 전달, 의미를 더했다. 2기 동문회 회장인 정용수 회장은 이날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교가 오랫동안 명문사학으로

빛나길 기원한다”며 “우리 동문들은 학교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의과대학은 지난 2022년부터 홈커밍데이를 통해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모으고 있다. 현재 8호 기부자까지 탄생했으며 발전기금 모금액은 3억 5,000만 원이다.



## 오낭자 석좌교수

채색화 작품 50점 기증

자연 현실미를 환상적 정경으로 변용시키는 화조화 대가이자 故 천경자 화백 1호 수제자인 오낭자 석좌교수가 전시회 미술 작품 판매액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데 이어 작품 50점을 학교에 내놓아 화제다.

홍익대 동양학과 출신인 오 교수는 지난 1988년부터 25년 동안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를 지낸 뒤 명예교수에 이어 지난해 2학기부터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오 교수는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에 뜨겁게 가르치고 작업했던 동아대에 인생을 둔다는 생각으로 지난 1973년부터 최근까지의 작품 50점 기증을 결심했다”며, “살아 있는 동안엔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인데 의미 있는 작품이 생기면 또 기증하겠다. ‘오낭자 그림은 부산 동아대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계속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낭자 석좌교수 / 오낭자 석좌교수가 동아대에 기증한 '자연'(2005) / 오낭자 석좌 교수가 동아대에 기증한 '동백'(2006)

## 구자봉 리우개발 대표이사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구자봉 리우개발(주) 대표이사가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82학번으로 총동문회 상임임원을 맡고 있기도 한 구 대표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이번에 또 1억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구 대표는 “학교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총장님과 총동문회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계신 신정택(세운철강 회장) 회장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보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경제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며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더 많은 동문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우 총장은 “항상 모교에 막강한 힘이 돼주시는 동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2030 국내 최고 프런티어 사학'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신정택 동아대 총동문회장, 구자봉 리우개발(주) 대표이사, 이해우 총장

## DONATION NEWS

### 홍완표 부곡스텐레스 회장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만학으로 경영대학 지식재산서비스경영학과를 지난 2월 졸업한 홍완표(75세) 부곡스텐레스(주) 회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아들 홍성박(금속공업과 석사, MBA졸) 대표이사과 함께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그는 2022년 이노비즈인의 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 부문 '교육부장관 표창', 2020년 수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9년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왼쪽부터 홍완표 부곡스텐레스(주) 회장, 이해우 총장, 홍성박 부곡스텐레스(주) 대표이사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친상을 치른 후 조의금을 로스쿨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작고한 송 교수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 후 돌아와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입학한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부산 동아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과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수료한 후 지난 2007년 동아대 교수로 부임, 로스쿨 설립 과정에 동참했으며, 동아대 법률상담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법제처와 검찰청 등에서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졸업생 12명 로스쿨 발전기금 1,200만 원 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2기 졸업생들이 발전기금 1,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발전기금 기부엔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박혁(박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양동원(법무법인 나침반)·강동구(법무법인 로펌나무)·이덕영(법무법인(유한) 정인)·최봉석(법무법인 무한)·나민항(군법무관)·박민아(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양재성(법무법인 해인)·이상훈(법무법인(유한) 에스엔)·최연욱(군법무관)·한영후 변호사, 서동훈 검사(서울북부지검) 등 12명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박혁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박혁 세무회계 사무소), 송관호 법학전문대학원장

###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 ROTC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가 ROTC(학군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자 학군단(ROTC) 15기인 이 대표는 제18대 동아대 ROTC 총동문회장과 제26대 대한민국 ROTC 부산지구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ROTC 총동문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동아대 ROTC 동문 장학회가 만들어지는 등 동문들이 힘을 모아 후배 양성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매스컴을 통해 총장님과 학교의 활약상을 접하고 있다. 총장님을 믿고 모교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 박현태 대외국제처장



## 성기진 AMP총동문회 제50대 회장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총동문회장에 취임한 성기진(55기) 동명산업(주) 대표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아대 기계공학과 85학번이자 산악부 출신인 성 대표는 ‘여수시 스타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동명산업(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동아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대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엔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4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왼쪽부터 성기진 제50대 AMP동문회장, 이해우 총장

## 임창섭 원우회장 비롯 AMP 56기 일동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56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AMP 56기 수료생 34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임창섭 56기 원우회장을 비롯한 원우 일동은 대학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총장은 “바쁜 일정에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제56기 수료자 전원에게 축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같고 닳은 학문적 소양을 마음껏 발휘해 경영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시길 바란다”며 “77년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속의 선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모교 발전에도 일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임창섭 원우회장

## 천휘철·이현주·홍성박 MBA 동문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5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가 제26회 정기총회 및 2023년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철(46기) (주)C&D그룹 회장이 정석봉(44기) (주)참코청하 대표 이사에 이어 제27대 MBA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고, 자랑스러운 경영인상과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수상한 천휘철(46기)·이현주(47기)·홍성박(54기) 동문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홍성박 동문, 이해우 총장, 천휘철, 이현주 동문

## (주)투핸즈인터랙티브 유왕윤 대표이사 증강현실 실내 운동 플랫폼 디딤 기증

(주)투핸즈인터랙티브 유왕윤 대표이사가 2,000만 원 상당의 증강현실 실내 운동 플랫폼 ‘디딤(DIDIM)’을 기증, 동아대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소장 박헌태)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는 ‘디딤(DIDIM)’을 승학캠퍼스 ‘D-Square’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에 비치해 스마트헬스케어 및 건강운동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개발에 활용한다. 두 기관은 비접촉식 LIDAR센싱 기술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운동 인지 복합 중재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를 통해 치매 및 근감소증과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술 개발, 건강운동과학 및 규제과학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유왕윤 (주)투핸즈인터랙티브 대표이사, 박헌태 대외국제처장

## 경영대학

### '성석동 강의실' 완공식 개최

동아대 MBA(경영학석사) 54기인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의 기부로 학생 강의실을 리모델링, 동아대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경영대학 1층에 '성석동 강의실'이 자리잡았다. 성석동 강의실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추가 설치됐고 바닥과 칠판, 외벽도 새 단장 됐으며 의자와 책상도 전면 교체됐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노트북 충전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설도 설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아대와 수근종합건설(주)는 양해각서를 체결, 성 회장이 장학금 3억 원을 조성해 해마다 경영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종 정보교류와 함께 교육 및 사회봉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경영대학 1층 '성석동 강의실' 완공식에서 이해우 총장과 성석동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4개 동아리 300여 명 활동

### 제10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발대식 개최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10기가 발족했다.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은 지난 2014년 전국 대학 최초 동아리 중심의 봉사단으로 발족해 음악과 체육, 댄스, 미술·사진·만화 등 작품전시, 미술, 과학, 주거환경 개선, 벽화그리기 등 각종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쳐오고 있다.

'늘봄' 동아리 대표 박민정(중국어학과 4) 학생은 "동아리와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10기 봉사단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동아리 구성원들도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청춘홀에서 열린 제10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학생 370여 명

### 경남 거창군에서 5박 6일간 농촌봉사활동 펼쳐

지난 6월 말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진행된 농촌봉사활동(농활)에 동아대 학생 370여 명이 참가해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거창군 15개 마을로 흩어져 과실류 봉지사기, 잎채소류 수확, 마을 환경정비, 벽화 그리기 작업 등을 펼치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

동아대는 지난 2015년부터 거창군에서 농활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대와 거창군은 자매결연을 맺고 거창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동아대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농활 출발에 앞서 부산농협본부(본부장 정병규)가 동아대를 방문, '도농상생 농촌일손돕기 지원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농활 참가학생 도시락 구입에 사용됐다.



경남 거창군에서 농활을 펼치고 있는 동아대 학생들

## 학과-경찰서 협업으로

### 지역 사회에 기여

동아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해 디지털콘텐츠제작세미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디지털범죄 예방' 캠페인 다큐멘터리를 3편 제작한 데 이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학과 학생들은 부산서부경찰서와 함께 스톱킹 범죄 정의, 수사절차, 피해자 지원제도, 지원기관 등에 대해 안내하는 '스톱킹범죄 제대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원룸 등에서 혼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이용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다큐멘터리 제작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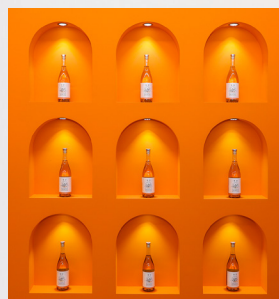
함께하는 즐거움  
**DONG-GAM**

# 감으로 만든 와인, 동감

동아대학교 종합농장에서 재배한 단감이 원료로 들어간 와인입니다.



국내산 단감으로만든 와인  
 과일주 750ML / alc. 7%  
 추천온도 4-5°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개인

강금순	곽도훈	김기중	김봉수	김원재	김창오	남은희	박녕클	박재우	배한숙	손병구	신정환	오남자	윤상헌
강기수	곽동철	김길조	김봉진	김위근	김창완	남재성	박달해	박재진	배형우	손석창	신정훈	오대중	윤석기
강나현	곽명서	김나량	김상림	김윤경	김창준	남지연	박동진	박정국	백건희	손재홍	신종선	오민홍	윤성국
강남욱	곽미진	김나현	김상봉	김윤정	김창훈	남찬섭	박영숙	박정영	백경민	손정순	신지용	오상민	윤성수
강다연	곽선화	김남국	김상열	김윤진	김채수	남창우	박미경	박종기	백경원	손정우	신지용	오선문	윤성욱
강대성	곽성은	김남군	김상엽	김윤희	김춘덕	남현정	박미란	박종민	백상훈	손정한	신창엽	오성배	윤성환
강동구	곽은희	김남수	김상준	김은경	김춘영	노강민	박미옥	박종신	백승우	손종윤	신하늘	오성용	윤세련
강동환	곽형린	김남영	김상진	김은주	김태근	노경혜	박미정	박종율	백영기	손창현	신현범	오세경	윤아영
강동윤	구간인	김남주	김상태	김태수	김태수	노기호	박미향	박종현	백종국	손채훈	신호민	오소라	윤영준
강동일	구관희	김남희	김상현	김은혜	김태완	노병환	박미혜	박종훈	백차승	손태종	신흥기	오수연	윤원만
강동현	구민수	김노훈	김상호	김의도	김태우	노상우	박민선	박주상	백희자	손판도	신희진	오승현	윤원용
강동훈	구종환	김다운	김석	김익현	김태원	노연정	박민성	박주현	법인지	손하은	심미화	오승환	윤은기
강래욱	권기항	김대호	김석지	김익자	김태철	노영진	박민수	박준식	변상민	손현준	심부자	오윤석	윤은주
강명자	권대성	김대경	김석현	김일근	김태훈	노영훈	박민아	박준혁	변선영	손현지	심성희	오은미	윤인식
강영진	권동식	김대륙	김선규	김일영	김태희	노창현	박병규	박준형	변성우	손현진	심영규	오용수	윤인환
강영호	권명수	김대영	김선미	김재연	김판석	노춘근	박병규	박준호	변성철	손현태	심재후	오인석	윤재준
강문성	권민지	김대욱	김선익	김재한	김평	노해성	박병형	박준홍	변성호	손형수	심정열	오민석	윤정환
강민지	권성길	김대웅	김선희	김재현	김하나	노현숙	박복자	박지연	변영철	손홍락	안경순	오주성	윤정현
강봉순	권순일	김대준	김성기	김재홍	김학이	노현옥	박봉걸	박지용	변종석	송강직	안기범	오지환	윤지호
강상모	권영근	김대중	김성동	김철수	김학이	노희관	박봉철	박지은	변진혜	송대성	안길용	오진환	윤진호
강성훈	권영근	김대진	김성열	김정근	김형진	노규완	박상석	박지혜	변행석	송영근	안나일	오창일	윤찬수
강석우	권영삼	김대현	김성목	김정규	김현미	도동오	박상아	박지현	사정훈	송모란	안목련	오현택	윤창민
강성원	권영성	김대환	김성자	김정대	김현수	도선영	박상원	박지혜	서광민	송민정	안미혜	안보은	윤창영
강성운	권영준	김덕열	김성재	김정득	김현우	라광현	박상원	박진익	서대관	송병준	안보은	옥수선	윤태영
강수진	권영탁	김덕현	김성진	김정희	김정준	류관진	박상은	박진영	서동균	송성훈	안주현	옥순상	윤해진
강영조	권오구	김도경	김성태	김정민	김현중	류단비	박상혁	박진홍	서동훈	송시영	안성률	왕립	윤현우
강용진	권오근	김도한	김성현	김정석	김현진	류미향	박상현	박차원	서미옥	송유진	안승광	왕민	윤훈용
강원호	권용빈	김도훈	김세훈	김정선	김현희	류민호	박상훈	박찬규	서상국	송은화	안신정	왕승민	이기영
강은미	권우정	김동섭	김소현	김정아	김형기	류순식	박사준	박창구	서석준	송재만	안영주	왕카이	이강배
강은혜	권재영	김동수	김소형	김정환	김형록	류승훈	박석강	박창범	서성구	송정량	안원석	왕성준	이강욱
강이래	권주영	김동우	김수연	김정화	김형빈	류용우	박석주	박창석	서성환	송주영	안일선	유미양	이경선
강정호	권태정	김동준	김수자	김정희	김형석	류윤아	박선원	박창수	서승원	송진영	안정수	유연주	이경열
강정화	권한용	김동진	김수정	김정국	김형수	류은영	박상범	박창순	서신애	송창호	안주현	유은정	이정용
강종훈	권현규	김동환	김수진	김종철	김형진	류윤희	박상빈	박창열	서영호	송창희	안중기	유진희	이경운
강주용	권현안	김동훈	김순돌	김종민	김형철	류인형	박상일	박창현	서우석	송형기	안태형	원동화	이경학
강주원	권혜민	김두진	김순진	김종식	김혜경	류주형	박성재	박차오	서재규	송홍철	안태형	원창선	이경환
강지연	권효정	김민재	김승익	김종욱	김혜란	류희희	박성지	박철현	서재유	송훈준	안효성	위순선	이정훈
강지현	권효철	김명기	김승우	김종혁	김혜숙	문건주	박성혁	박철홍	서정빈	신경미	안효익	유경규	이경희
강지환	권희진	김명범	김승일	김종현	김혜영	문동욱	박세영	박춘래	서정우	신경아	양건석	유경탁	이교은
강태윤	기성훈	김명수	김승태	김주영	김혜정	문병진	박세준	박대위	서정택	신경택	양동원	유길준	이광식
강태홍	기사다기즈오	김명숙	김승호	김주오	김혜진	문상진	박소연	박한솔	서주환	신경호	양동훈	유동환	이국환
강하승	김가은	김명이	김시동	김주찬	김홍일	문선영	박수천	박한신	서주희	신기욱	양미경	유병철	이권희
강형모	김건욱	김명중	김아현	김준석	김환	문선정	박수호	박해일	서주연	신대용	양미자	유상호	이귀현
강해진	김건우	김명주	김애희	김준우	김환봉	문영주	박순영	박해지	서현준	신미경	양상섭	유수영	이기성
강호길	김경민	김문범	김양근	김준찬	김희경	문요한	박순우	박혁	서화영	신민	양성동	유승진	이기혁
강효	김경배	김미란	김양이	김중완	김효성	문진호	박승중	박현숙	석민서	신민준	양신우	유영현	이기환
계인수	김경우	김민수	김양희	김지건	김효준	문철주	박시윤	박현우	선정애	신병준	양자경	유윤희	이기훈
고상만	김경태	김민영	김연국	김지나	김훈	문혜신	박연주	박현태	설영진	신봉준	양재성	유재룡	이나현
고상석	김경화	김민원	김연식	김지만	김희경	문환웅	박영한	박형태	설형수	신부삼	양재호	유재룡	이난희
고성광	김경훈	김민정	김영권	김지숙	김희돈	민영기	박영일	박혜진	성기근	신상문	양주선	유재욱	이남경
고성원	김경희	김민주	김영근	김지연	김희선	민현선	박영태	박홍준	성기진	신상열	양준위	유정욱	이남주
고수현	김광란	김민철	김영민	김지현	김희선	민혜숙	박영후	박환식	성낙균	신상용	양지훈	유재은	이노성
고여경	김광열	김민하	김영선	김지혜	김희준	박건우	박옥순	박효민	성낙용	신상원	양혜리	유현우	이대명
고영남	김구	김민형	김영우	김진경	나마타파	박경렬	박옥섭	박희태	성낙창	신상의	양홍호	유형욱	이대성
고영라	김구연	김민희	김영일	김진길	나민향	박경민	박옥영	반한용	성백석	신성현	여주영	유혜민	이대승
고유석	김권민	김범수	김영준	김진석	나용	박경미	박유영	반한용	성병찬	신성호	염병섭	유호재	이덕영
고윤성	김권호	김병국	김영하	김진수	나진숙	박경식	박대중	반대중	성봉자	신숙영	염병세	윤기연	이도관
공경란	김규리	김병권	김영호	김진순	남경문	박경애	박윤경	방지혜	성세환	신숙옥	염에연	윤갑식	이도현
공미정	김규범	김병립	김영환	김진아	남광호	박경우	박윤호	배길식	성수현	신영아	에비덴에비스	윤금주	이도환
공병민	김규준	김병봉	김영훈	김진용	남명구	박경원	박용호	배도정	성이용	신영완	이세비	윤대민	이동민
공윤종	김규한	김병조	김영주	김진욱	남보현	박경환	박은경	배동고	성재희	신용우	여승현	윤민희	이동민
공혜경	김근민	김병찬	김오연	김진웅	남상돌	박광원	박은정	배성류	성지현	신용택	여태규	윤미	이동숙
공희원	김근우	김보람	김옥란	김진형	남상설	박광춘	박은진	배상한	성종재	신용호	여호근	윤민수	이동원
곽경영	김기수	김보배	김원중	김진형	남선우	박광훈	박일근	배유일	손경석	신용호	연지훈	윤별	이동원
곽광우	김기영	김보연	김원준	김진홍	남승덕	박규한	박장식	배주용	손경환	신재봉	염정국	윤별아	이동주
곽기혁	김기원	김보준	김우남	김진호	남승현	박기상	박재근	배지영	손광석	신재욱	염창홍	윤상우	이동준
곽길수	김기정	김복남	김우현	김창석	남윤성	박기현	박재민	배진경	손민근	신정현	오구환	윤상일	이동진

## 법인·단체

이동철	이영웅	이지영	임형준	정민준	정효목	차경천	최은정	허만용
이명숙	이영춘	이지옥	임혜연	정민호	정훈	차동환	최은희	허미나
이명진	이영호	이지운	임혜진	정병수	정희원	차병철	최익준	허성란
이명환	이영환	이지원	임홍석	정보운	제갈진우	차서현	최인숙	허성우
이무연	이옥부	이지혜	장기철	정봉석	조경근	차윤석	최일규	허연철
이무호	이용발	이진	장기현	정봉식	조규판	차윤숙	최일근	허영민
이문정	이용석	이진걸	장영수	정석진	조기영	차은희	최재억	허영호
이문희	이용원	이진규	장문재	정선미	조동길	차재용	최재영	허재복
이미랑	이용희	이진우	장미	정성규	조문수	차재운	최재호	허정
이민우	이웅건	이진태	장민우	정성욱	조문형	차중문	최정현	허진만
이민원	이원구	이찬연	장병일	정성원	조미경	차지훈	최정호	허진혁
이민준	이원빈	이창경	장상욱	정성훈	조민성	채세용	최정훈	허창환
이민혁	이원호	이창수	장선희	정수진	조민재	채순지	최준환	허태희
이반디	이원희	이창율	장성규	정수희	조범근	채승훈	최준환	허형록
이병기	이은남	이창훈	장세훈	정승민	조봉현	채종덕	최지수	허혜숙
이병문	이은숙	이철오	장소라	정승봉	조상호	천상영	최창윤	현승용
이병선	이영창	이철우	장소영	정안성	조서백	천차림	최창현	현안나
이병훈	이은임	이충석	장승권	정연봉	조석봉	천정빈	최케이트그은	현연수
이보경	이은정	이충섭	장시영	정영균	조성식	최광호	최현석	현창욱
이보람	이은주	이태광	장옥정	정영삼	조숙희	최구진	최현중	형민아
이보희	이익선	이평세	장운창	정영수	조슬기	최구환	최현태	홍남식
이상도	이인용	이필우	장재희	정영진	조아라	최금찬	최형림	홍상혁
이상봉	이일성	이해강	장정운	정영현	조애진	최금화	최형열	홍서영
이상엽	이장욱	이혜우	장정표	정우진	조양홍	최기혁	최혜경	홍순권
이상완	이장현	이해인	장정환	정원화	조영식	최대성	최혜린	홍순환
이상용	이장호	이행진	장준봉	정유태	조영운	최동원	최혜정	홍영섭
이상원	이재강	이현경	장지현	정윤정	조예분	최문수	최호림	홍용석
이상윤	이재동	이현상	장지환	정은서	조완섭	최민하	최호석	홍자영
이상진	이재선	이현	장원진	정은하	조용복	최민숙	최홍규	홍지연
이상훈	이재성	이현경	전경수	정의제	조용언	최미옥	최홍조	홍현두
이서윤	이재열	이현섭	전계훈	정인상	조우숙	최민아	최희선	홍혜정
이서정	이재영	이현세	전관수	정일권	조원빈	최민주	최희원	황경원
이석봉	이재욱	이현정	전동산	정재경	조은	최민철	추상욱	황국
이석용	이재원	이현주	전미라	정재민	조장우	최백	추성호	황규철
이선우	이재은	이현호	전상학	정재선	조재현	최병열	탁규만	황규홍
이선주	이재진	이현희	전선위	정재현	조철기	최병희	표용희	황기식
이선하	이재민	이혜민	전성목	정재현	조환래	최병일	하고운	황남수
이선희	이재형	이혜숙	전성웅	정종혁	조현선	최보라	하광봉	황덕기
이성구	이재훈	이혜원	전성현	정종화	조현아	최보은	하기영	황명균
이성민	이정관	이호산나	전수민	정중희	조현주	최봉석	하민호	황보한
이성숙	이정규	이호재	전아영	정준식	조현준	최봉환	하상현	황부상
이성우	이정란	이호정	전언찬	정지민	조형열	최상식	하승태	황서목
이성춘	이정만	이호진	전용기	정지분	조혜영	최상운	하승훈	황성원
이성호	이정민	이효종	전재국	정진영	조혜정	최서현	하은희	황순민
이성훈	이정웅	이홍재	전재혁	정진영	조홍률	최서현	하정현	황영식
이소연	이정은	이희원	전정순	정진웅	주명희	최선미	하정훈	황영정
이솔주	이정재	이희정	전찬권	정진희	주석민	최성문	하주희	황영현
이수호	이정화	인정란	전찬민	정찬식	주성식	최성수	하진숙	황영희
이승규	이정훈	임미경	전효정	정창석	주인석	최수호	하준목	황욱연
이승용	이정희	임병찬	전효철	정충훈	주인숙	최승환	하한정	황원주
이승욱	이종길	임상호	정강재	정태화	주재현	최신애	하형주	황의경
이승은	이종민	임석순	정경미	정태화	주차돈	최애은	하현우	황인성
이승재	이중서	임석준	정경환	정태훈	주현욱	최연욱	한경문	황자영
이승준	이중철	임시연	정규식	정혜영	주형준	최영숙	한경훈	황재용
이승태	이중학	임영미	정기욱	정해용	지강인	최영익	한덕희	황정후
이승현	이중호	임영희	정남기	정현식	지선인	최영일	한동국	황지영
이승형	이중화	임옥근	정달식	정현욱	지선자	최영주	한세억	황지영
이승희	이주성	임윤경	정대성	정현경	진경천	최영진	한승호	황지원
이시은	이주영	임윤지	정덕업	정현우	진병래	최영호	한영립	황지현
이신영	이주현	임정식	정동열	정현욱	진소영	최영환	한영후	황현규
이아희	이준석	임지아	정득현	정현진	진영주	최용수	한종원	
이애경	이준숙	임지현	정명철	정형일	진윤달	최우석	한준성	
이양복	이준용	임지혜	정무섭	정혜선	진윤홍	최우철	한진석	
이연진	이중경	임진규	정미숙	정호관	진재운	최원	한현석	
이영근	이중현	임진혁	정미영	정호균	진종길	최원준	함정임	
이영민	이지나	임현석	정민	정호원	진주한	최유준	허경행	
이영석	이지연	임형규	정민석	정화주	진태훈	최은령	허남인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금융학과 재경동문회
(재)두류문화연구원	김태현변호사법률사무소
(재)화랑문화재단연구원	김해 장유 작심스페이스
(주)HKM	대신금융
(주)KTE	덕천필리부과의원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주)메디파워	리우개발 주식회사
(주)메종건축사사무소	미래넷
(주)비에프씨씨	밝은불안과
(주)신도시엔지니어링	법률사무소 규리
(주)에듀피플스	변호사 김병헌 법률사무소
(주)우리전열	부곡스텐레스(주)
(주)원봉	부산지방변호사회
(주)유디엠	숲속심리언어상담센터
(주)지앤지코퍼레이션	우진닷컴금융
(주)지앤시	인사이드 법률사무소
(주)진도토건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가람카크리닉	진양선박
거제리 명가	하나이비인후과 병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방유비스(주)
56기동문회	허준이비인후과
구덕레포츠	화동수산

## 후원의 집

(주)엔컴퓨터아카데미	소중함이치과의원
(주)올복스	송월타올
금호회집	송이아구찜
누리마을김자탕	아이시티안과의원
대궁삼계탕	어심초밥
대물림 찜송집	영의루
대훈기획	이가한우
더진국하단점	이모식당
도리원	장시영살롱드뷰티
동경초밥	진선
동원장수촌	초원복국
밝은눈안과의원	초유플라워
본가사하점	카플러스
산정	투썸플레이스동아대점
상록광고기획	파리베게뜨부민점
선미집	하단돼지국밥
성일숯불갈비	화국반점
소담	흥부가

#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 시 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후원의 집 01  
**누리마을감자탕**  
부민동아대점

#하단맛집 #정문에서30초 #감자탕



후원의 집 02  
**대궁 삼계탕**

#부민맛집 #삼계탕 #보양식



후원의 집 03  
**디진국 하단집**

#냉면 #직화구이 #수육국밥



후원의 집 04  
**엄궁 도리원**

#만원대 #14첩 #한정식 #두부요리



후원의 집 05  
**토성동 동경초밥**

#스시맛집 #코스요리 #백년가게



후원의 집 06  
**송이아구찜**

#엄궁맛집 #아구찜 #해물찜

# SPOTLIGHT DONG-A SNS

동아인이 울고 웃고 고민했던 바로 그 순간&이슈를 소개합니다.

 donga\_univ



2월 일반 새내기들   동현재 반장   cpa 고민들

**회계사 기술문제?  
눈감고도 풀지?**

♡   ◻   ↻   ●●●●●   📌

[동현재 고시반]  
회계사 기술문제? 동현재 고시반은  
눈감고도 풀지 ✨

 #동현재 #동현재고시반 #회계  
#세무 #회계사 #세무사 #cpa

 donga\_univ





**동아대 축구부  
1등 남친감 찾기**

♡   ◻   ↻   ●●●●●   📌

[동아대 운동부 축구부편]  
축구부 PICK ⚽ 1등 남친감은?!

 #축구부 #동아대축구부 #축구  
#대학축구 #운동부 #축구선수


 donga\_univ



**DONG-A  
SPRING  
FESTIVAL**

♡   ◻   ↻   ●●●●●   📌

[DONG\_A SPRING FESTIVAL SKETCH]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

 #동아대축제 #축제 #밤 #동아대봄  
축제 #spring #festival #대학교축  
제

 donga\_univ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플라스틱 컵은?**

• 깔끔하게 버리는 플라스틱 컵 •

30초 컷 가능!

♡   ◻   ↻   ●●●●●   📌

[깔끔하게 버리는 플라스틱컵]  
30초로 지구 지키기 🌱

 #커피 #분리수거 #플라스틱컵 #텀  
블러쓰기 #중간고사 #화이팅 #아자  
자 #힘내라힘내라

## 동아 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K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http://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http://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https://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https://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https://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